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혜진 마리루시 (토포교보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탈출 17,8-13

화답송 | 시편 121(120), 1-2. 3-4. 5-6. 7-8)



(후렴)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눈을 들어 산을 보노라. 나의 구원 어디서 오리오? 나의 구원 주님께에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 그분은 너의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으시리라. 잠들지도 않으시리라. ◎

제2독서 | 2티모 3,14-4.2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8,1-8

영성체송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신다.

성가 | 입당 58
영성체 166(158)

예물준비 246(215)
파견 63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문귀영 베드로

생미사 지향

- 우리 즐거움의 원천(행동&협조단원)

- 루카 신부님 영명축일

- 이웅희 루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 이웅희 루카 신부님의 축일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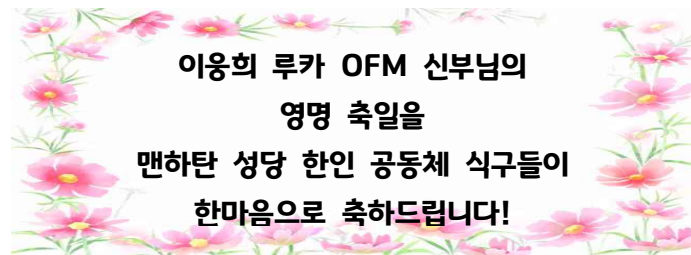
- 김현수 프란치스코, 정승연 플로라, 송지연 프란체스카, 한서희 데레사

- 문영룡 로사리아 가족을 위하여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10월 19일	정유진	김규현	이경자	김미혜	김종선	이예진 조성윤
10월 26일	국민준	강호영	장민우	민덕미	이영혜	한서희 김수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오늘 미사 중에 신부님의 영명 축일 축하식이 있습니다.



**이용희 루카 OFM 신부님의
영명 축일을
맨하탄 성당 한인 공동체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사 후 산 다미아노 홀에서 신부님 축일 축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 오셔서 축하의 기쁨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새 교우분 맞이

새로 오신 교우분들을 위해 본당에서 <새신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 다미아노 홀 친교모임에서 만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646. 685. 7788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10월 로사리오 성월, 주일 미사전 묵주기도

10월 한 달 동안 8:50AM 부터 모든 교우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후보 광고 신청

2026년 후보 광고 신청 받습니다.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신청 마감 및 비용: 10/26(주일), \$ 300(수납: 재무데스크)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 후보의 기존 광고는 올해 말까지 지속됩니다.

SNS 성경 공동통독(마르코/마태오/루카)

대상: 전 신자(10/6-12/12)

방법: 각자 매일 1장씩 정해진 분량 읽기, 언제든지 참여 가능

(늦게 참여하신 분들의 경우, 진도가 나간 분량은 개인적으로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참여방법:

1. QR 스캔 또는

<https://open.kakao.com/o/g2b2QQUh>

2. 코드 10001 입력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12월에 성경통독을 함께 마무리하는 오프라인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5년 '위령의 날' 미사

오는 11월 2일(주일)은 죽은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위령의 날'로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합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의 사진(액자)을 가져오시면 이날 제대 앞에 두고 미사 중에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또한 이날 연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도 신청 부탁드립니다.

* 당일 연미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10월 31일(금)까지

문의 및 문자신청: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2025년 청년신자 재교육 특강

날짜: 11/8(토), 12/13(토)

담당: 이용희 루카 OFM, 안 마리루시 수녀

시간: 4:00PM-5:00PM(청년 미사 전)

장소: 프란시스룸(11/8), 산 다미아노 홀(12/13)

대상: 세례를 받았지만 교리를 잘 모르거나 신앙생활의 기반을 재확립하고 싶은 청년들

문자신청: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 특강 전 3시 30분부터 공동묵주기도가 있습니다.

미동북부 남성 제44차 꾸르실로 피정

일시: 10/23(목)-10/26(주일) 3박4일.

장소: 뉴튼 수도원 289 US-206, Newton, NJ 07860

신청: 929. 444. 1411 (울프레아 간사 민완준 필립보)

'하늘처럼 성가대' 지휘자 &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고 음악으로 교우들에게 봉사할 지휘자 &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봉사로 피아노 반주가 가능하신 분 지원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성화해설



돛을 단 배

교부들은 종종, 돛을 단 배를 교회로, 안전한 항구를 하느님으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성모님께 봉헌된 마르세유대 성당의 후진(apse), 제대 위 반구형 돔에는 아름다운 배가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돛에는 성모님의 상징이 새겨져 있고, 하늘에는 A와 M이 겹쳐 'Ave Maria'를 뜻하는 바다의 별이 떠 있습니다. 등대에는 십자가가 빛납니다. 화려한 꽃과 새 장식은 배의 도착지인 낙원을 의미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성모님의 도움으로 순풍을 만난 배처럼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일 체험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묵주 기도

사람들은 갑자기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무의식중에 ‘하느님 아버지’ 하고 소리칩니다.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간에 갑자기 당황을 하면 찾는 소리가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저는 천주교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아버지를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갑자기 체온이 38도를 넘어 39도 가까이 되어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만 적이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응급실로 갔더니 열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사를 맞았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열이 떨어지지 않자, 상의를 벗기고 얼음 마사지를 하고서야 열이 조금씩 떨어져서 CT를 찍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10월 묵주 기도 성월을 맞아 그때를 묵상하며 단상을 엽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통해 지난 한 달간 저는 병중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 동고동락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이 글은 그 여정 속의 조용한 고백입니다.

체온이 37도를 조금 넘자 정신은 또렷했으나, 몸에는 여러 개의 주사기가 꽂혀 있고 산소마스크가 얼굴에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묵주가 들려 있었고, 그때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묵주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주님께서 성모님의 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묵주 기도는 생존입니다. 습관이기보다 간절함이고, 호흡이며, 하루를 여는 문입니다. 고요한 새벽, 저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십자성호를 그립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손 끝은 가만히 있지만, 상상 속 그 손짓이 제 하루의 첫 문을 엽니다. 아침이 밝으면 삼종기도를 바칩니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견뎌낼 내면의 준비이고 숨결을 기도로 엮어내는 살아있는 실천입니다.

묵주를 쥐 손은 작고 연약하지만, 기도는 크고 단단합니다. 잃어가는 것을 애도하기보다, 더 사랑하기. 이것이 저의 기도이며, 매일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혹시 지금 견디기 어려운 밤을 지나고 있나요? 숨이 벅찬 하루 속에 놓여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묵주를 쥐어보세요. 그 작은 알 하나하나가 당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사정을 아시기에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갯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마태 26,39)

이처럼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드리는 자세가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한 사랑을 깨달아 오롯이 묵주 기도를 바쳤을 때 우리의 청원을 반드시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 <춘천주보> 제 2349호(2025년 10월 19일) -



<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모집 >

주제: "이 눈에 빛을 주소서"(시편 13,3)

- 일시: 2026년 2월 2일 ~ 13일 (11박 12일)
- 순례지: 터키(성 바오로와 초기교회 유적지)

그리스(성 바오로 선교 여정지)

- 영적 지도: 이웅희 루카 신부님
- 신청 및 문의: 마리아투어 212-594-7773
- 신청시 준비: 여권 사본, 신청비 \$1,000,

선착순 35명

- 총 비용: \$ 3,950 + 공동경비 \$ 150